대안도시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태훈*

- 목 차 -

Ⅰ. 시작하며
Ⅱ. 문화도시와 유럽의 문화수도
Ⅲ. 창조도시와 창조계급
Ⅳ. 인문도시와 도시인문학
Ⅴ. 맺으며

|국문초록|

탈산업화 시대 서구에서 시작된 도시 재생과 대안도시의 이론들은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도 많은 논의와 현실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에 대한 이론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도시모델들 역시 실용성과 기능성에 매몰되어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것에 치중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로이 등장한 것이 인문도시라는 도시 모델과 도시인문학이라는 학문적 방법론이다. 인간을 중심에 둔 도시 재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시도들은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인문학을 도구적으로 고려한다든지, 여전히 도시 발전이라는 효용성의 문제와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문도시와 도시인문학은 도시발전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근원적으로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단절함으로써만 새로운 인간적인 도시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안도시, 문화도시, 창조도시, 인문도시, 도시인문학, 도시 재생

Ⅰ. 시작하며

도시에 대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1]하고 있기에 도시 개발,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들 역시 끊임없이 증가할 것임이 분명하다. 19세기 중반 이후 런던과 파리에서 시작된 도시 개발의 역사는 피터 로버츠(Peter Roberts)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 1950년대의 재건축(reconstruction), 1960년대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1970년대의 전면재개발(renewal), 1980년대의 재개발(redevelopment), 1990년대의 재생(regeneration)의 과정[2]을 거쳐 왔다고 한다. 그는 도시 재생을 '도시문제의 해결을 주도하고, 변화의 대상이 되었던 어떤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전과 행동[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앞선 단계의 도시 재개발이 '본질적으로 물리적 변화의 과정'이었다고 지적하며 도시 재생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전략적이고 분명한 목적성을 지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1) 201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25억 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북미(82%)와 유럽(73%)의 도시 인구 비율은 80%를 넘어서거나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14년 7월 11일자 기사 "유엔, 세계 도시인구 2050년까지 25억명 급증" 참고.

2) Peter Roberts, Hugh Sykes, *Urban Regener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p.14.

3) 위의 책, p.17.

이렇게 도시 재개발 또는 도시 재생의 역사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과거 물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 재개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더불어 포드주의의 한계에 부딪쳐 탈산업화 시대로 이행되면서 도시 재생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은 새로운 대안도시의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도시, 창조도시, 생태도시, 인권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강도시, 슬로시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이름을 지니긴 했지만 대안도시의 모델들은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개발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 도시 자체만큼이나 도시민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를 강조한다는 점,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도시 재생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 도시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반향을 얻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모델이다.

이 모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해외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도시 재생에 다양한 자양분들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도시 모델은 최근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 시도는 인문적 정신과 도시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도시를 설명하고자 하는 '도시인문학'을,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인문도시'라는 도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도시나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문화도시나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인문학과 인문도시의 관점에서 행해진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도시인문학과 인문도시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배경과 적절성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문화도시에서 인문도시까지 최근의 도시 모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도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런 변화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문화도시와 유럽의 문화수도

문화도시는 범박하게 말하자면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도시 구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며,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된 도시[4]'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문화도시는 이론적 기반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문화나 예술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쇠퇴한 산업 기반의 도시들에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도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문화도시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일종의 모자이크 형태를 띠는 것[5]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게다가 문화도시가 도시재생에 있어 하나의 모델로 정착하게 된 것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유럽문화수도[6]'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983년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멜리쿠르(Melina Mercouri)의 제안에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Jacques Lang)이 호응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문화 활동의 발전', '문화의, 문화에 의한 유럽 지역의 개발', '문화를 통한 경제, 사회 발전'[7]을 목표로 삼고 시작되었다. 비록 문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개발'과 '사회 발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더

---

4) 권호종 외,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 방안 -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26쪽.

5) 국내에서의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위의 글 23~25쪽 참조.

6)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들로는 임문영, 「유럽연합(EU)의 문화수도(文化首都)와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55, 한국프랑스학회, 2006, 곽동준, 정해조, 「유럽연합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분석 - ED의 결의문 1419, 649, 1622호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15,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7, 홍익표, 이종서, 「EU의 정치·경제통합을 위한 도시차원의 전략 :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U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등을 참조.

7) 이에 대해서는 Article 151 TUE et decision du Parlement europeen et du Conseil de l'UE du 25 mai 1999 참조.

욱 중요한 원인은 쇠퇴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이 기회를 통해 도시재생을 이루려는 간절한 바람에 기인한다. 산업도시였던 유럽의 도시들, 예를 들어 영국의 글래스고나 프랑스의 릴 같은 도시나 범죄의 온상이자 이민자의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마르세유 같은 도시들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들 도시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의 계기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8]에 속한다.

그러나 문화도시 모델은 우선 그 이론적 모호성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라는 단어의 다의성과 모호함만큼이나 문화도시의 이미지도 그만큼 다양하고 모호[9]'하다는 것이다. 그 모호함 때문에 '인간적'이니 '더 살기 좋은' 등의 수식어를 필요로 하며 결국 도시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실상 문화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폭넓어 '문화'와 '도시'를 결합한 문화도시는 정의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도시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모델은 한 테두리 안에 넣기 어려울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문화도시론이 점차 창조도시의 이론을 차용하여 이와 유사해지면서 창조도시 이론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이런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도시에 대한 비판은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 모델이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비판은 문화도시가 문화를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문화를 명목으로 삼아 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개발을 하는 양상으로 일반화되면서 '도시의 진화에 작용

8) 글래스고의 사례에 대해서는 서순복, 「문화수도 선정을 통한 도시 장소마케팅 전략 활동의 연구: 영국 글래스고 문화수도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행정학회, 2006, 조관연, 공윤경, 「영국 글래스고에서의 도시재생과 창조산업」, 『인문콘텐츠』 제2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을, 릴의 사례에 대해서는 엄홍석, 「유럽문화수도 - 'Lille 2004' 사례연구」, 『외국학연구』 22,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2를, 마르세유의 사례에 대해서는 김태훈, 「프랑스의 문화지방화와 문화도시 사례 연구: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46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를 참조.

9) 정성훈,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395쪽.

하는 자본주의의 개입'이 도시를 여전히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산업주의와 무관하지 않게[10]'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도 잘 보존된 문화유산들과 유럽문화수도와 같은 문화이벤트를 통해 산업 생산력의 쇠퇴를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화도시다. 즉 이는 '문화적 아우라를 판매하는 장소마케팅의 상업적 기획'이며 '도시 자체로서가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도시의 관광산업으로 귀결[11]'된다. 그 결과 문화도시 모델은 카지노 등의 사행산업이나 리조트, 콘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의지[12]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산업적 성공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게다가 유럽의 문화도시를 모델로 한 한국을 비롯한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문화시설을 랜드마크로 활용한 일종의 테마파크의 형태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을 무시하거나,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결핍되어 지역민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도시를 문화적으로 고양시켜 도시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문화도시의 이상과는 달리 '관광객을 위한 시설 조성과 이를 통한 투자 유치의 사슬 속에서 도시의 일상을 영위하는 도시 구성원의 의견이 침범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게[13]'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10) 김우영, 「후기 산업시대 문화기반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13(6),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54쪽.

11) 원도연, 「창조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22, 인문콘텐츠학회, 2011, 12쪽. 유럽문화수도의 성공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간에 유입된 관광객의 숫자이다.

12) 2013년에 유럽문화수도 행사를 치른 마르세유의 경우, 2014년 시장으로 당선된 장-클로드 고댕(Jean-Claude Gaudin)은 선거 공약으로 '나이트클럽', '카지노', '고급 쇼핑몰',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으로 가는 케이블카' 건설을 내세우게 된다. 특히 유럽문화수도 기간 중에 전시장으로 활용되었던 J1을 카지노로 바꾸겠다는 그의 공약은 문화예술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훈, 앞의 글, 55쪽 참조.

13) 송은하,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의 논리와 실제 - '인문도시' 평가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78쪽.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마르세유는 외로메디테라네라는 도시재생 사업과 2013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14] 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졸리에트(Joliette) 구역으로 대변되는 도심재개발이 야기한 도시주민들의 추방, 유명 건축가에 의한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박물관이나 문화시설들의 건설, 그리고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게 되는 오래된 도시 구역들의 소멸과 같은 상처들이 존재한다. 2015년 프랑스의 니콜라 뷔를로(Nicolas Burlaud) 감독은 「축제는 끝났다(*La fête est finie*)」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2013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마르세유의 모습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재생의 이면을 보여준다. 한 문화기획자는 영화 속에서 문화도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한다.

> 도시 재생의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민간투자자들이다. 이 민간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도시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평화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유럽의 대도시들 도처에서 보게 되는 그런 유형의 건축이다. 뒤를 돌아보면 이 동네의 아주 작은 과거가 아직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15]

Ⅲ. 창조도시와 창조계급

일반적으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창조도시[16]에 대한 논의의

14) 2013년 유럽문화수도 행사기간 중 마르세유를 찾은 방문객 수는 총 1,100만 명으로, 4억 3000만 유로의 경제 효과, 2,800개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의 관광산업 발달과 경제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훈, 위의 글, 49쪽 참조.

15) David Abittan, "Marseille après la Capitale européenne de la culture", *tema.archi*(www.tema.archi), 2015 참조.

16) 창조도시론자들의 이론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매우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자원으로 삼은 장인기업들을 주축으로 하여 기존의 대량 생산적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개편하고 보다 나은 외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도시경제를 고양, 부흥시키려는 문화적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는 도시, 그러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도시[17]'라고 정리될 수 있는 제이콥스의 생각은 창조도시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이며 이후 창조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참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론가들은 유럽의 산업도시 재건을 바탕으로 한 랜드리(Charles Landry), 미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다. 이 세 이론가 모두 도시와 도시인들의 창조적 능력을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에서 차이는 있다. 사사키는 창조도시를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18]'라고 정의하면서 대표적인 창조도시로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일본이 가나자와를 소개한다. 특히 그가 이 두 도시에서 주목하는 것은 도시의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요성이다.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한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내발적 발전과 '과도한 영리주의와 관료주의를 억제하고, 인간들의 창조적인 일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창조도시에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사사키 이론의 특징이며 이런 점에서 제이

창조도시에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 연구로는 남기범,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6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정성훈,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송은하,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의 논리와 실제 - '인문도시' 평가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17) 남기범, 위의 글, 10쪽.

18) 사사키 마사유키, 정원창 역, 『창조하는 도시』, 소화, 2004, 53쪽.

콥스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랜드리의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의 쇠퇴가 빚어낸 유럽 여러 도시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문화와 예술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의 고유한 창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창조도시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사람의 존재와 다양한 재능에의 접근, 조직문화, 지역의 정체성, 도시의 공간과 시설, 네트워킹의 역동성[19]' 등을 제시한다. 그는 창조도시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그것의 성공적인 실천은 상호 협력, 존중, 호혜의 정신이 있는 곳에서 가능[20]'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의는 도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고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내용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이론은 철학적 기반이나 원칙을 갖춘 일관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구상자'로서 '테크닉의 조합이자 다양한 책략[21]'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창조도시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관심의 급증이 플로리다를 주목하게 만든 것이다. 그의 이론은 대도시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창조계급'과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로 집중된다. 창조성을 지닌 인적 자원이자 창조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창조계급들이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핵심적 요소이며 따라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도시는 3T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이지수로 대표되는 다양성 또는 개방성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게이, 보헤미안, 외국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규율과 규범에 제약받기 싫어하는 창조적 인재들이 진입하기 용이[22]'하고 이 창조적 인재들이 도시

19) 남기범, 앞의 글, 15쪽.
20) 찰스 랜드리, 임상오 역, 『창조도시』, 해남, 2005, 1쪽.
21) 찰스 랜드리, 앞의 책, 235쪽.
22) 김태경, 『창조도시이론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13쪽.

의 창조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조도시론은 문화도시론에 비해 이론적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창조성,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문화라는 개념만큼이나 모호하고 폭넓은 개념이어서 이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전제부터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한 도시의 창조성이 창조계급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환상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창조성이란 '소수의 창조적 계층에서 위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현상'이고, '도시 전반의 물적, 인적 기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형성[23]'되기 때문이다.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 '창조계급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만 연구했지 창조적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역동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24]'는 비판이 가능하다.

더불어 도시의 창조성을 창조계급에 한정되는 것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소수의 창조계급과 비창조계급, 창조적 도시와 비창조적 도시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플로리다의 이론은 '코스모폴리탄적 엘리트주의와 통속적 보편주의, 쾌락주의와 책임감, 문화적 급진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사회적 자유주의와 비즈니스 현실주의를 뒤섞어 놓은[25]', 즉 정치적으로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뒤섞어 놓은 모호한 이론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 덧붙여 랜드리나 플로리다가 제시하는 창조정책 및 창조성 지수가 도시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비현실적이고 규범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 도시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비판, 플로리다의 창조성 지수의 적합성에 대한 비판, 즉 창조성 지수인 3T와 지역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랜드리나 플로리다의 주장은 도시행정가들을 설득하기 쉬

23) 남기범, 앞의 글, 19쪽.

24) Joelle Foreste, "Réintégrer la ville dans la problématique de la ville créative", Forum Innovation VI - Edition 2014 - Crise, innovation et transition, p.10.

25) Jamie Peck,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2005, p.741.

운 일종의 컨설팅처럼 실용성이 강조됨으로써 도시에 대한 철학적 이해나 도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Ⅳ. 인문도시와 도시인문학

인문도시와 도시인문학이라는 용어 또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물론 도시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나 도시가 더 인간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인문도시'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시 모델이 제안되거나 도시를 연구, 분석하는 학문 분야로서 '도시인문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대략 2009년을 기점[26]으로 한다. 물론 인문도시는 인간중심도시, 인간도시, 인권도시 등의 다양한 이름과 여전히 경합중이고 연구자에 따라 'Human City', 'InMunDosi', 'Humanistic City' 등의 서로 다른 영어 이름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미완의 개념[27]이다. 도시인문학 역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형성 중이며 하나의 학문 분과로 완성되어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28]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시도는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앞선 대안도시 모델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새로운 도시

26) 이는 서울시립대학교가 2007년 '글로벌폴리스의 인문적 비전'이라는 연구과제로 인문한국사업을 시작하고 그 연구과제의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인문과학연구소를 2008년 '도시인문학연구소'로 개칭하여 2009년부터 『도시인문학연구』라는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물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한 것과 관련이 있다. 덧붙여 인천학연구원이 2009년 '인천세계도시인문학대회'를 주관하여 도시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 역시 도시인문학 담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인문도시에 대한 논의 역시 더욱 활성화되었다.

27) 해외의 경우 영어권에서는 'Good City', 'Humane City', 'Human Metropolis', 'Humanist City' 등이, 프랑스어권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ville à visage humain)'와 같은 용어가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되어 왔다. 영어권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송은하, 위의 글, 87~89쪽을 참조.

28) 도시인문학이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연구자에 따라 '도시인간학', '도시시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허경, 「'도시인문학'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도시인문학 담론의 계보학」, 『황해문화』, 2015, 80쪽 참조.

모델을 제안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문도시에 대해 살펴보자. 인문도시는 크게 보아 한편으로는 '토건 중심의 도시계획에 반대하는 담론'으로 기존에 제시된 '창조도시와 문화도시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29]'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도시 재생이 인간이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는 진단이 이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사회가 '인문정신이 결여된 기능적 시민을 양산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정신적 역량의 빈곤화[30]'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도시로서의 인문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도시모델의 필요성과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연구자들은 인문도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조금은 불편해도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공간, 인간의 심성을 자극하여 더욱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그래서 도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인문도시[31]'나, '새로운 인재가 꾸준히 유입되고 창조적 발상이 새로운 문화로 꽃필 수 있는 도시이되,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고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도시[32]'와 같은 정의는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문도시의 정의이다. 반면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인문체험」·「인문축제」등을 통해 인문학(문학·역사·철학·종교·예술 등)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33]'라는 한국연구재단의

29) 정성훈, 앞의 글, 400쪽.
30) 박연규, 「인문도시를 위한 인문정책 방향: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권,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42쪽.
31) 유승희, 「인문도시의 가능성」, 『플랫폼』, 제18호, 2009년 11/12월.(http://platform. ifac.or.kr/webzine/)
32) 정성훈, 앞의 글, 405쪽.
33)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신청요강」, 5쪽. 이영의, 「인문도시의 구조와 내용 : 춘천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28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99쪽에서 재인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정의가 도시에서의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의 정의는 '인문학'을 강조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인문도시 정의는 인문학을 기능적으로 이해[34]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문학과 관련된 이벤트들, 즉 인문학 강좌, 체험, 축제 등의 이벤트가 인문학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인문학을 확산시키는 것이 인간과 그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게다가 이 인문도시 정의는 과거 문화도시를 행정적, 기능적으로 정의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문화'라는 단어를 '인문'이라는 단어로 옮긴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반면 첫 번째 정의는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이 정의에 근거한 도시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유교적 공간화를 꿈꾸는 한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자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도시를 구획'한 조선시대의 '한성'이 '인간과 자연을 함께 존중하는 휴머니즘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문도시였다는 평가에서 그 지향점을 이해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인문도시의 현대적 모습을 '복잡한 도시 공간을 비우는 작업', 즉 '차 없는 거리, 광장, 생태공원 등[35]'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하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된다.

> 인권도시, 인간도시, 인문도시 등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발상을 함축하는 도시 개념들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다소 공허하다. 이런 도시 개념들에는 오늘날의 도시가 '사람들의 삶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창조도시론과 문화도시론에 함

34) 연구과제를 모집하기 위한 신청요강에 기재된 정의인 만큼 그 학문적 적합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에 기반을 두고 인문도시 연구를 진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35) 유승희, 앞의 글.

축되어 있는 시대 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문적 비판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36].

즉 인문도시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도시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앞서 제시된 문화도시나 창조도시에 인문적 비판을 덧붙인 모습, 즉 인문적 창조도시, 인문적 문화도시와 같은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의 영역에서 도시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인 '도시인문학'은 '도시과학과 같은 도시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융합학문'으로 정의되며 이 새로운 학문은 '도시 주민의 삶과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자본중심의 도시 공간 변형에 대한 비판의식, 인문학하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도시 주민들과 공유하려는 사회적 실천[37]'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도시인문학의 등장 배경으로 '인문학'적 요인과 '도심 담론의 현 상황'이라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에서 인문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인문학의 현실 적합성과 유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융합학문으로서의 도시인문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증하는 도시 문제와 도시경제의 위기에 기존의 도시 담론이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인문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는 일상문화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체험에 대한 열망이 결국 연출된 진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염증[38]'이 인문정신과 도시인문학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등장한 도시인문학은 중요하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는 '장소성 담론'으로서, 다른 하나는 '비판 담론'으로서의

36) 정성훈, 앞의 글, 404쪽.
37) 서우석, 「도시인문학의 등장 - 학문적 담론과 실천」, 『도시인문학연구』 6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31쪽.
38) 서우석, 앞의 글, 33~34쪽.

역할이 그것이다. 인문학이 지역의 장소성을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담론을 제공하며 도시이미지, 축제, 관광 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성 담론이라면, 기업가적 도시 전략의 강화가 빚어낸 공공성 상실, 문화도시나 창조도시 전략이 빚어낸 문화의 도구화나 거대 문화 상징물 건축을 통한 도시이미지 경쟁의 심화는 도시 공간 및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이 빈곤한 까닭이며 이에 대한 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담론[39]이다.

장소성 담론으로서의 도시인문학은 도시를 '텍스트'로 인식하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느끼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소성 담론으로서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과거의 이론들을 참조하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을 놓고 '도시인문학의 진정한 선구자[40]'라고 평가한다. 도시인문학이 벤야민을 선구자로 여기는 것은 그가 '산책자'라는 새로운 도시의 주체를 설정하고 그의 시선과 촉각과 체험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도시 파리가 아니라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파리를 텍스트로 읽어내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즉, 도시 자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지각방식과 이를 지각하는 새로운 주체를 그가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의 거주민을 객체로 만들고 관광객을 위해 거대한 건축물이나 문화시설들을 통해 연출된 도시 체험을 제공하는 기존의 도시 모델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41]이다.

---

39) 서우석, 앞의 글, 38~43쪽 참조.

40) 도시인문학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벤야민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 - 벤야민의 도시인문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2(1), 한국라깡과정신분석학회, 2010, 김동윤, 「창의적 미래 도시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인문학"의 학문적 기반 심화 연구 - 횡단의 세미오시스와 문화기호생태계 고찰」, 『기호학 연구』 27권, 한국기호학회, 2010, 김소라, 이병민, 「산업유산 활용 사례를 통해 본 인문학적 도시재생 방향모색」, 『문화 역사 지리』 26(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4 등의 논문과 홍준기 편,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라움, 2010 등의 연구 모음집이 있다.

41) 도시를 텍스트로 이해하고 이를 읽어내고자 하는 장소성 담론으로서의 도시인문학은 바르트, 들뢰즈의 기호학적 분석과 마페졸리의 '일상성'에 대한 분석으로, 또는 라깡의 정신분석으로 참조의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윤, 위의 글과 홍준기, 「도시공간 구성의 의미에 관한 인문학적, 정신분석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4(1), 한국라깡과정신분석학회, 2012를 참조.

비판 담론으로서의 도시인문학은 '탈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전망 속에서 신자유주의 도시 비판[42]'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도시의 비인간화를 불러왔고 이에 맞서 인간을 위한 도시의 전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비인간화는 단지 신자유주의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도시 재개발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기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나 기 드보르(Guy Debord)는 비판 담론으로서의 도시인문학에 출발점을 제공한다. '산업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시공간을 재편했고 도시공간은 도시, 지역, 국민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탄생시킨다고 인식'한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방식과 사회적 공간을 매개로 한 투쟁은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의 전복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변혁을 위한 사회적 운동[43]'을 제안하다. 또한 드보르는 '현대도시가 소외 및 권태, 통제의 공간이자 사회적 지배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도시공간의 의미가 자본과 전문화된 도시계획자들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해 '직접적인 참여와 실험적인 놀이를 위한 공간을 창출[44]'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르페브르나 드보르의 현대 도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위한 제안들은 신자유주의 도시재개발을 분석하고 비판한 하비(David Harvey)와 같은 연구자들에게 계승되었고 현재 비판 담론으로서의 도시인문학의 이론적 원천이 되고 있다.

---

42) 이성백, 「21세기 도시연구의 새로운 방향 – 탈신자유주의적 도시의 탐색」, 『도시인문학연구』, 6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8쪽. 이성백은 탈신자유주의적 도시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비드 하비의 정치경제학적 도시론, 사스키야 사센의 지구적 도시론, 마누엘 카스텔의 정보도시론, 에드워드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3) 민유기, 「현대 프랑스 도시이론의 세계적 영향력」, 『한국프랑스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집』, 2011, 22~23쪽 참조.

44) 민유기, 위의 글, 24쪽.

V. 맺으며

서구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의 대안도시 모델들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1세기 들어서였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문화를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도시 재생을 위한 문화통합계획이 확립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서 시작[45]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문화도시, 창조도시 이론과 사례 연구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사회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변화 가능성과 역동성을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연구들은 이 이론들과 그것에 근거한 도시 재생이 지닌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 문제들에 집착해 왔다.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두 모델은 많은 경우 서로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결국 두 모델이 담고 있는 정신보다는 그 기능성에만 관심을 지녔기 때문이다.

산업화 과정의 도시 개발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도시의 모델들 역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에 집착하면서 앞선 시대에 개발된 도시와 외양만 달리한 불평등과 인간 소외의 공간이기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대안도시의 모델이 인문도시이며 인문도시를 가능하게 해 줄 이론이길 원하는 도시인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문도시에 대한 논의들 중 많은 경우는 문화의 자리에 인문이라는 단어를 놓고 인문 이벤트, 축제 등을 통해 인문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인문학 또는 인문정신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45) 박은실, 「도시 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17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23쪽. 참여정부는 전국 차원의 문화 성장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중심도시사업을 계획하였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부산영상산업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도 실현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문도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인문도시를 앞선 도시들을 대체할 새로운 도시 모델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두 도시가 담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을 보존한 채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한정[46]짓기도 한다.

이는 인문도시의 방법론으로서 도시인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판 담론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경쟁력 제고의 전략적 수단'이 되기 위해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47]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이론이 도시발전을 경제적 효과의 창출, 도시의 물질적 부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탈출하지 못하는 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문학, 인문정신이란 어떠한 효과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기 반성적 학문이며 정신이다. 따라서 도시를 인문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능과 효용을 추구하는 도시 기획에 균열을 만들어 그 기획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도시를 전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 막는 모든 시도들을 비판함으로써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근원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도시인문학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아무런 효용성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기존의 도시 모델이 그 한계에 이른 것은 그것들이 효용성의 생산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문도시와 도시인문학은 이에 대한 반성이며 이 반성을 통해 더 인간다운 도시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앞선 논의들을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근원적이고 혁명적인 단절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46) 정성훈, 앞의 글, 400쪽. 정성훈은 광주의 사례를 들어 문화보다는 문화산업에 중심을 두고 건설 사업에 집중하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닌 위험성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9는 '인권도시' 개념이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인권도시가 문화도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또는 보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47) 서우석, 앞의 글, 47쪽. 서우석은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도시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인문학이 '비판적 성찰에서만 머물지 않고 도시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참고문헌|

David Abittan, “Marseille après la Capitale européenne de la culture”, tema.archi(www.tema.archi), 2015.

Jamie Peck,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2005.

Joelle Foreste, “Réintégrer la ville dans la problématique de la ville créative”, Forum Innovation VI – Edition 2014 – Crise, innovation et transition.

Peter Roberts, Hugh Sykes, *Urban Regener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곽동준, 정해조, 「유럽연합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분석 – ED의 결의문 1419, 649, 1622호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15,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7.

권호종 외,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 방안 –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김동윤, 「창의적 미래 도시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도시인문학"의 학문적 기반 심화 연구 – 횡단의 세미오시스와 문화기호생태계 고찰」, 『기호학 연구』 27권, 한국기호학회, 2010.

김소라, 이병민, 「산업유산 활용 사례를 통해 본 인문학적 도시재생 방향모색」, 『문화 역사 지리』 26(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4.

김우영, 「후기 산업시대 문화기반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6),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김태경, 「창조도시이론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김태훈, 「프랑스의 문화지방화와 문화도시 사례 연구: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46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남기범,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6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민유기, 「현대 프랑스 도시이론의 세계적 영향력」, 『한국프랑스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집』, 한국프랑스학회, 2011.
박연규, 「인문도시를 위한 인문정책 방향: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권,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박은실, 「도시 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17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사사키 마사유키, 정원창 역, 『창조하는 도시』, 소화, 2004.
서순복, 「문화수도 선정을 통한 도시 장소마케팅 전략 활동의 연구: 영국 글래스고 문화수도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행정학회, 2006.
서우석, 「도시인문학의 등장 - 학문적 담론과 실천」, 『도시인문학연구』 6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송은하,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의 논리와 실제 - '인문도시' 평가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엄홍석, 「유럽문화수도 - 'Lille 2004' 사례연구」, 『외국학연구』 22,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2.
원도연, 「창조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22, 인문콘텐츠학회, 2011.
유승희, 「인문도시의 가능성」, 『플랫폼』, 제18호, 2009년 11/12월.(http://platform. ifac.or.kr/webzine/).
이성백, 「21세기 도시연구의 새로운 방향 - 탈신자유주의적 도시의 탐색」, 『도시인문학연구』 6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이영의, 「인문도시의 구조와 내용 : 춘천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28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임문영, 「유럽연합(EU)의 문화수도(文化首都)와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55, 한국프랑스학회, 2006.
정성훈,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조관연, 공윤경, 「영국 글래스고에서의 도시재생과 창조산업」, 『인문콘텐츠』

제2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찰스 랜드리, 임상오 역, 『창조도시』, 해남, 2005.
허 경, 「'도시인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도시인문학 담론의 계보학」, 『황해문화』, 2015.
홍익표, 이종서, 「EU의 정치·경제통합을 위한 도시차원의 전략 :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U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홍준기 편,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라움, 2010.
홍준기, 「도시공간 구성의 의미에 관한 인문학적, 정신분석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4(1), 한국라깡과정신분석학회, 2012.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 - 벤야민의 도시인문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2(1), 한국라깡과정신분석학회, 2010.

<Abstract>

Critical Review of Discussions about an Alternative City

Kim, Tae-hoon

Theories of urban regeneration and an alternative city began from the West in the era of post-industrialization become the subjects of a lot of discussions and applications to the reality in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Of those, theories of a cultural city and a creative city are receiving intensive attention. However, in recent years, the city models, too, have been inclined to the pursuit of economic utility, invested in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so they receive a criticism that they lack an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human beings. What newly emerged, criticizing this problem, is a city model of a humanistic city and academic methodology of urban humanities. In a sense that they pursue person-centered urban regeneration, these new attempts are meaningful efforts. Sometimes, however, they do not still completely break away from the problem of utility, urban development, e.g. They consider humanities instrumentally. Therefore, humanistic city and urban humanities, standing at the starting point, will be able to proceed to the appearance of a new human city only b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undamentally.

Key Words : Alternative city, Cultural city, Creative city, Humanistic city, Urban humanities, Urban regeneration

이 논문은 2016년 3월 18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7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6년 4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